마음 담긴 시선, 마음 죽은 시선

(민20:14~29)

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24.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 담긴 시선, 마음 죽은 시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담긴 시선, 마음 죽은 시선'
"혼이 담긴 시선으로"라는 책이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부제가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한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소개를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매일아침 350만 명의 가슴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 도원 씨입니다. 고 도원의 아침편지가 유명하죠. 이분의 책입니다. '혼이 담긴 시선으로'에서 '혼'은 책 속의 글들을 보면 '마음이 담긴 시선으로'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저자 자신이 명시합니다.
고 도원 씨가 이 책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어디에서 얻었느냐면 사진작가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브레송이 "사진을 찍을 때에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마음의 눈을 위해서이고, 찰나에 승부를 거는 것은 사진의 발견이 곧 나의 발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쪽 눈을 감고 사진을 찍는 것은 단지 육체의 눈으로만 피사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보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사체를 바라보는 사진작가의 마음이 시선을 통해서 그 피사체에 담기게 되고, 그런 사진을 찍을 때에 내 마음이 담긴 그 사진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멋진 돌을 발견하고 찍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에 나타날 때에 고

도원 씨에 따르면 '전율을 느끼는 사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책 전체의 기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 도원 씨가 지향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란 '사진작가가 마음으로 사진을 찍을 때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담아서 보라'는 애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수백 번 셔터를 눌러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혼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바라 볼 때에도 그냥 바라보면 울고 웃는 얼굴표정만 보이지만, 혼을 담아 바라보면 눈물 속의 기쁨이, 웃음 속에 슬픔이 녹아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표정이 보인다. 하루하루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시선에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 도원의 아침 편지에 열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의 교인들은 어느 때에야 세상을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말들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에게 소위 감동을 주는 말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분인데,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아름답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말들을 찾아내서 아침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십자가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논리의 샘물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을 주는 모든 말들이, 땅 위의 삶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논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180도 돌려서 세상을 갖도록 한 것인데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도록 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을 세상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민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혼(마음)을 담은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 시선은 본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내 마음의 시선이 죽어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시선에 담기게 됩니다. 나의 시선에 내 마음이 담겨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가족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있는 시선이어야 내 가족들을 향한 시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지극히 사랑하면 성공이라는 말도 돈 버는 것이 되고, 희망이라는 말도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질 때에 감동이 됩니다. 무조건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십자가 복음 말씀으로 생활화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명언이 있고,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격언이 있고, 아름다운 수상록에 쓰여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말들인 경우가 십중팔구인데 이것을 잘 가려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가데스와 가나안 사이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아시는 대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로서 거기를 통과하려고 모세가 그 혈육상의 인연을 기대하며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고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겠다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나안땅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해서 돌아가다가 호르 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므리바 사건으로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온 회중 곧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고 하는데 굉장한 것입니다. 창50: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칠 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물과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할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지만, 40년 광야생활 속에서 지도자로 자기들을 이끌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아론이 죽었을 때에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부부도 싸움을 많이 하고 죽네 사네해도 먼저 한 사람이 죽으면 살맛이 안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론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이 아론과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본문과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나오는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사실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한 므리바 사건과 가나안 사이에는 에돔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로막음’을 이야기하시려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가나안과 가데스 사이에 에돔이 가로막고 에돔 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서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통과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광야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의 인도가 언제 정확하게 끝이 났는지는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나서야 구름기둥의 인도가 끝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에돔을 가로지르게 하셨으면 에돔도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우회했다면 그대로 했으면 됐을 것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전후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려는 비유적 메시지로서 에돔의 사건을 알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선민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할 때에는 느낌과 그 결과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모든 선민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영적 상태가 므리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모세가 중보를 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백성에게로 가서 백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선민을 사랑하는 선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수명이 끝났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마음이 백성으로 차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수명은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차 있는 동안에는 교인들에 대한 지도자로서 리더십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에 예배당 건축이 차고 교인들의 부흥이 마음이 차고 교회 재정이 마음에 차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끝나고 그때부터는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에 먹혀서 교회가 클 수도 있어요. 모든 선민들의 마음이 비즈니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 도원 씨는 '나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나만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완전히 장삿속이 되는 것이죠.

역사상 이 세상과 교회의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에돔이 가나안과 가데스를 가로막듯이,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 선민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

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니고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는 선민의 시선을 가렸다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가리지 않을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지 않는 존재는 지도자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나 돈이나 사업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립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마음은 건강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마음이 담기질 않습니다. 돈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다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선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통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가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로 시선을 모으시고, 장사되셔서 흩어졌던 마음을 부활하셔서 그 시선을 모아서 다 끌고 승천하시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시선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보낸 자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나고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고 내 마음이 죽어버린 시선 속에 내가 지금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이고 제사장은 늘 십자가 번제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번제단을 주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만 번제단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던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실패는 번제가 망각될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던 모세와 아론이 번제단에서 죽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나라를 담지 않고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담아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이고, 그의 죽은 마음의 시선이 나라를 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800만 명이 육

체의 눈으로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시선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800만 개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버려서 나라를 보는 시선 속에 800만 개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800만 개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담기신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800만 개의 시선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나라로 보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 도원 씨가 책에서 말한 내용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마음을 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것들 중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한두 가지고 나머지는 마음을 두지 않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백 가지면 백 가지 다 영혼이 담긴 사진처럼 찍히려면 내 마음을 담아서 찍는다고 찍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진작가와 고 도원 씨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주어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바라보시며 거기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보내드리므로 백합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볼 때의 주님의 시선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 마음은 어디 가서 있어요? 하나님아버지께로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을 나는 새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게 되니 공중에 나는 새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을 끝없이 땅을 향하게 만드는 사탄의 궤휼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쉬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며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람들의 시선과 교인들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에돔이 가로막아 가나안과 가데스를 분리하듯이 그렇게 가로막지 않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시선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은 십자가 주님에게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한 조각도 담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선민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